

여성의 세기에 여성은 있는가?

박영숙 본 재단 이사장

새천년에 들어선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송구영신의 통과의례로서 우리들이 으레 거치는 것은 보내는 한 해를 돌아보며 자기성찰을 하는 것이고 맞이하는 새해를 위한 또 한 번의 다짐을 하는 것이리라. <여성의 세기에 여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창립 6주년을 기념하고 7주년을 향한 문턱에서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여성계의 현 주소를 짚어보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성의원들이 의정사상 유례없이 다수 진출하고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부문에 최초로 진입하는 여성들이 줄을 이으며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여성들의 발목을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호주제가 폐지되는가 하면 성매매 및 성폭력관련 제도개혁과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계의 괄목할만한 발전과 변화를 몰라서가 아니다.

이 질문은 이들 성과가 과연 인구의 반인 여성들의 삶의 조건향상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제반문제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자성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이 우리나라 하늘의 '절반'을 떠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런 사실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여성대통령까지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웬 만지나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오늘의 사회적 화두는 보수·진보를 망라하여 '행복' '희망' '생명' '평화'이다. 여성계는 아직 산적되어 있는 여성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이들 화두에 대한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의 전략적인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여성의 존재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여성재단의 고민은 2006년도의 사업풍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400여개의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과 한정적인 재정능력에 비추어 어떤 사업들을 집중 지원할 것인가를 재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는 우리나라의 전체 여성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모금창구인 여성재단이 오늘의 모습에서 탈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대변혁이 없이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부성향이 힘 있고 영향력이 큰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 공익 활동 중에서도 여성운동을 지원하는 기부문화는 척박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 기부관련제도나 세제는 육성이 아닌 규제일변도의 것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문제는 시민사회 공동으로 성취해야 하겠지만 여성계의 특별한 문제들은 여성들 스스로의 몫이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여성계에서는 보수, 진보, 입법부, 행정부, 산업계 및 시민사회 여성들이 집결된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2006년은 지방자치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정치일정과 맞물린 한 해이다.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견인해 내는 힘은 바로 여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던 모든 분들께 성탄과 새해에 하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많이 만드시고 나누세요.